

##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7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빌립보서 2: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므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이냐 물으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많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인지 모르고 매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매일 직장에 출근하면서도 자기 상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출근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대답은 두 각도에서 되어져야 합니다.

곧,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신 분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요?하는 질문을 Person of Christ(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질문이라 하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신 분인가요? 하는 질문은 Work of Christ(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질문이라 합니다.

저는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을 두주에 걸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질문과 하신일에 대해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을 기독교론이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론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두주간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을 다 믿고 이해하시는 분은 기독교의 핵심중 핵심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론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으로 선언되기까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400여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AD 450년 칼세돈 공의회입니다. **제가 여기서 선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기독교론이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안에서 공동으로 고백되어지던 내용을 이것이라고 공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항상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됩니다.** 도올 김용옥 교수는 기독교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진 종교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교리 공부를 한번도 하지 않은 사람의 주장입니다. 교리는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론의 내용은 구교(Catholic)나 신교(Protellant)나 같습니다. 신학의 다른 부분들, 교회론, 말세론, 성찬론등은 교파마다 약간씩 주장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지만, 기독교론은 다르면 않됩니다. 기독교론이 다르면 이단입니다.

먼저 이번 주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 1.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성, Two nature 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100% 사람이며, 100% 신이라는 것입니다. True God, true human, 다시 말하면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도 시대부터 고백되어진 신앙 고백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인격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Hypostatic Union, 이성일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성령의 증거로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보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입니다.

또 신성을 지지하는 구절은 본문에서는,

빌립보서 2 : 9 이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 :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 :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셨느니라 입니다.

신성을 지지하는 구절은 성경안에 너무 많지만 한 구절 더 뽑아보면,

히브리서 1 : 3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성령의 증거로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과 성경이  
없이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않습니다.

초대 교회의 이단중 영지 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의 기본 주장은 영은 선하나 물질은  
더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물질인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으며,  
예수님은 영이라고만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거짓 진리가 초대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을 때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 : 2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일서 4 : 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없어지고, 속죄 사역은  
물거품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이단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AD 325 년에 이단으로 정죄된  
아리우스 주의에게 뿌리를 둔 이단인데, 영지 주의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위대한 인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오늘날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으로 Unitarianism, 삼위일체가 필요없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회등이 있습니다.

또 금세기에 국제 사회에서 한국 사람을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는 한국판 이단인 통일교의 문선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실패하였기 때문에 재림주로 자신이 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자기가 구세주가 되기 위해선, 원죄와 자범죄가 없어야 하는데,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재림주가 왜 죽어야 하는지를 자증해야 할 때가 곧 다가옵니다.

초림한 예수나 재림할 예수는 나사렛 예수 한 분 뿐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유혹은 교묘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 아니면 그들과 논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 다음과 같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 1 : 10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요한이서 1 : 11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함께 나누십시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트랙터로 땅을 막 갈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수많은 개미들이 먹이를 옮기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하도 안스러워, 개미에게 소리를 질러, ‘빨리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개미가 사람의 말을 알아 들을 수 있나요. 개미에게 말하기 위해선 개미가 되질 않으면 안됩니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 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을 또 역으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으므로 사람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가장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선 예수님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신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둘사이를 연결하고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중보자라고 하며

디모데전서 2 : 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이 두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중보자 안에서 예수님의 인성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죄없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지만 구주로서 예수님은 보통 인간과 다른 특성은 원죄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냐,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4:15 은,

**히브리서 4 : 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죄없이 태어난 완전한 인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신 분이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아담이 타락한 즉시부터 계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후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 : 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것ियो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것ियो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인간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남자의 후손이라 칭해지지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태어 났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라 칭해지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불려집니다. 이 말은 원죄없이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이사야 7 : 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은, 예수님 오시기전 700 년 전에 동정녀 탄생으로 구체적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언에 따라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마굿간에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오시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 : 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태복음 1 :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 : 22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마태복음 1 :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 1.2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칭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함께 나누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신성을 50%, 50%씩 나누어 가졌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이 100%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나누어 가지지 않으면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초월된 분이시고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갖지 않은 피조물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면 초개와 같이 불타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나누어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동일한 신성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예언하는 구약의 예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이사야 9 : 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 : 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 예언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질 수 있는 신적 명칭이 베들레헴의 마굿간에서 태어나신 아기에게 다 돌려집니다.

이사야 9 :6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임이라

이사야 9 : 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9 : 5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 본대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이것을

에베소서 2 : 4 공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에베소서 2 :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에베소서 2 :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고귀하고 높은 것인가를 보여 줍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때,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의 권리는 우리에게 전가되어 ,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함께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신성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합니다.

마가복음 16 : 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마가복음 16 : 18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 : 4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말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 : 21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고린도전서 15 :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 말합니다.

사람의 죄가 사람의 사망을 가져왔으므로 사람의 속죄와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일을 위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던 것은 당연합니다.

## 결론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신 것은, 성령이 주시는 확신으로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증보자로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우리의 축복을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우리의 권세와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있는 신앙인이 되게 합니다.

이 신성과 인성의 반석과 같은 믿음위에서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이  
되길 기원합니다.